■ 나주 봉황중 3학년 2반의 NIE 수업

"논술 교재 따로 필요 없어요. 우리 학교에선 신문이 교과서에요." "세상을 펼쳐라. 세계가 보인다. 신문을 읽어라. 그러면 내일이 보입니다."

"56년 전통 광주일보가 최고의 교과서"

"논리·창의력 쑥쑥…자신감 생겼어요"

17일 오전 10시 40분 나주시 봉황면 봉황중학교 3학년 2반 교실.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11명(남학생 1명, 여학생 10명)의 학생들은 수업교재인 광주일보를 뒤척이며 기사를 스크랩하기 시작했다. 곧이어 학생들의 책상 위에는 교육자율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 사회 관련 기사들이 수북하게 쌓였다.

이 학교는 지난달 초부터 56년 전통의 광주일보를 교재로 'NIE'(Newspaper In Education·신문활용수업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일보가 교재로 선택된 것은 지역의 대표 신문을 통해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직업·환경·지역의 문제점 등을 학생들에게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날 수업 주제는 '초·중등 교육 자율화에 대한 우리들 생각'. "선택한 기사를 스크랩한 후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조미옥(여·46) 교사의 말이 끝나자 학생들은 신문에서 오려낸 사진을 A3용지에 붙인 뒤 자신의 생각을 적어나갔다.

이다혜(여·15)양은 "초·중학교 자율화 계획이 추진된다면 학생들은 새장에 갇혀 공부만 하는 아이들이 될 것이다. 우리 학생들의 의견과 적성,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계획안이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지향(여·15)양은 "교육자율화가 실시될 경우 시골과 농촌, 우열반 편성에 따른 학생들간 열등감과 스트레스가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조 교사는 "농촌 학생들의 경우 도시 아이들에 비해 사교육 등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데, '학생들에게 신문만 열심히 읽어도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기사를 보고 학생들이 다양한 해결방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깜짝 놀란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배우고 있다"고 미소를 지었다. 학생들의 반응도 적극적이다. NIE 활동을 꾸준히 실시해 온 결과 학생들의 논술실력과 창의적 사고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김은식(15)군은 "신문을 보면서 사고방식이 다양해졌다. 시사용어도 많이 알게 됐다"며 "친구들과 얘기할 때 자신감도 생긴다"고 말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신문이 논술과 글쓰기 '최고의 교재'임을 체득한 셈이다.

장봉화(60) 교장은 "학생들이 신문활용수업을 통해 인성(人性)을 배우고 글쓰기 능력도 키운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17일 나주시 봉황면 봉황중학교 3학년 2반 교실에서 진행 된 신문활용수업(NIE)에서 학생들이 광주일보를 정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시립 무용단원 공채 합격 4명 응시자격 논란

광주시 문예회관은 "최근 실시한 시립무용단원 공채에서 합격한 무용단원 8명(남성 6명·여성 2명) 가운데 남성 단원 4명이 공채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문예회관의 조사 결과 이들은 채용 규정상의 10년 경력을 갖추려면 중학교 시절부터 무용을 배웠어야 하는데 이들이 다닌 중학교에는 무용반이나 무용 동아리가 없었으며, 대신 방과 후 학원에서 무용을 배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문예회관 측은 학교가 아니라 학원에서 무용을 배웠더라도 당시 소속 중학교의 학교장 직인이 찍힌 확인서가 있다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어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문예회관 관계자는 "광주·전남에서 발레를 가르치는 중학교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부분 학원에서 실기를 배우고 있는 점을 감안, 학교장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다"며 "채용과정에 의혹은 없으며 만약 확인서가 가짜일 경우 합격을 취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나우찬참 〈7485〉 김종두

광주 원룸에 2인조 강도

형제와 격투…동생 숨져

2인조 강도가 공무원 형제가 살고 있는 원룸에 침입해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했다.

17일 새벽 0시35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의 E 원룸 1층에 2인조 강도가 침입해 방에서 모 세무서 공무원 김모(31)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과 상품권 등 19만2천원 상당의 금품과 신분증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강도들은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왔다가 김씨 형제에게 발각돼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김씨의 가슴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도들은 김씨를 흉기로 찌른 뒤에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대라"며 15분간 방안에 머물렀고, 김씨 형제에게 "비밀번호가 틀리면 내일 찾아와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한 뒤 달아났다.

김씨의 형(35)은 경찰조사에서 "강도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칼을 들었다'는 동생의 말을 듣고 더 이상 대항하지 않았는데, 범인들이 나간 뒤 방안에 불을 켜보니 동생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형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범인의 인상착의를 파악하는 한편, 현장에서 수거한 지문과 머리카락 등을 수거해 국과수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숨진 김씨는 지난해 말 세무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한 지가 불과 몇 달밖에 안 지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안현주·이종행 기자 ahj@kwangju.co.kr

여성 2명 새벽 동반 투신자살

광주의 한 건물 옥상에서 60~70대로 보이는 여성 2명이 투신자살했다.

17일 새벽 1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 5층 건물 옥상 앞 골목길에서 60~70대로 보이는 여성 2명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주민 오모(32)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오씨는 경찰에서 "잠을 자려는 순간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연이어 들려 나가봤더니 노인으로 보이는 여성 2명이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발견 당시 이들의 왼쪽 손목에는 흉기로 자해한 듯한 3~4㎝의 상처가 나 있었으며 주변 건물 옥상에서는 이들의 족적과 혈흔이 발견됐다. 하지만 이들의 신원을 확인할 만한 유서나 신분증 등은 없었다.

경찰은 왼쪽 손목 상처 부위에 출혈을 막기 위한 스카치 테이프가 붙여져 있는 점으로 미뤄 이들이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동반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두 여성의 얼굴이 비슷한 점으로 미뤄 모녀나 자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변사자의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파악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BBK 김경준씨 징역 10년·벌금 150억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경준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윤경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 징역 10년 및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BK투자자문과 MAF 펀드를 운영하면서 투자를 유치했고, 투자자문업 등록이 취소돼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기존 투자금을 이용해 신주를 배정받고 납입한 유상증자 자금은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으며 주식의 처분대금 대부분이 자신의 미국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타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150억원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이유도 덧붙였다. /연합뉴스

대출 청탁 대가 돈 챙긴 수협 조합장·간부 실형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는 17일 대출 청탁 등을 받고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 수재 등)로 기소된 강진군 수협 배모(53)조합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조합 상무 박모(48)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직원 차모(43)씨에 대해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권일기자 cki@

운전중 여성 엉덩이 만지고 뺑소니

쌍나팔

○…광주북부경찰은 17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달아난 김모(26·북구 용봉동)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차창 밖으로 손을 뻗어 A(여·26)씨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그대로 도주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고의로 A씨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운전석 창밖에 내민 손에 무언가가 닿았을 뿐"이라고 극구 부인.

○…경찰은 차종과 번호판을 어렴풋이 기억한 A씨의 진술과 목격자 등을 토대로 차적 조회를 한 끝에 김씨를 검거.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